



장관, 중남미와의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위해 칠레 등 방문

- 우리 경제사절단과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하여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과의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월 28일(토)부터 칠레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한다. 산업부 장관이 이들 국가를 방문한 것은 칠레는 ‘15. 4월 이후 8년 반 만이고,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최초의 방문이다. 이번 방문에는 정부, 공공, 민간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첫 방문지인 칠레는 2003년 한국이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거점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2차 전지 핵심광물인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주목받는 폴리브덴 매장량이 세계 4위인 국가이다.

방문규 장관은 칠레 정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수소·태양광 등 우리 기업 진출 방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Carbon Free) 연합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주요 기업과 함께 사업(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하여 양국 간 민·관 협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계기(모멘텀)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10월 12일 제23회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바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 핵심 도서국으로서 주요 역내 기구인 카리브공동체(이하 카리콤)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7월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방문규 장관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교역·투자 확대, 산업·에너지 협력, 민간 경제교류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주무관	김승재 (044-203-5633)
			주무관	이 슬 (044-203-56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